

중앙 아메리카의 엘리트 : 변천과 특징*

김달관(울산대 카리브해 연구센터)**

- I. 서론
- II. 중앙 아메리카 엘리트의 기원과 특징
- III. 중앙 아메리카의 정치·사회적 특징과 변천
- IV. 중앙 아메리카의 경제적 특징과 변천
- V. 현대 중앙 아메리카 엘리트의 특징
- VI. 결론

I. 서론

중미는 1970년대 자연재해(태풍, 지진) 및 오일쇼크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표출될 때마다 중미 각국 정부는 서로 다르게 대응했다. 대체적으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대처했고 코스타리카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했다(Williams 1994). 1992년 과테말라의 리고베르타 멘추(Rigoberta Menchú)는 과테말라 정부의 잔혹한 인권탄압에 맞서 원주민 인권향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노벨상을 받았고,¹⁾ 1987년 코스타리카의 아리아스 산체스(Oscar Arias Sanchez)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M2009).

** Dal-Kwan Kim(University of Ulsan, The Center for Caribbean Studies, mundokdk@hanmail.net), "Central America's Elite: Changes and Characteristic".

***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유익한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1) 1992년 과테말라인으로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다. 그녀의 수상은 콜럼버스의 아메

대통령은 중미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어 노벨상을 받았다.²⁾ 이처럼, 과테말라 엘리트는 권위주의적이고 인권 탄압적이며, 코스타리카 엘리트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치문화를 각각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테말라 엘리트의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사회 문화와 중미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치·사회 문화를 보유한 코스타리카 엘리트 사이의 편차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왜 과테말라에서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치·사회 문화가 형성되었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치·사회 문화가 형성되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정치·사회 문화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등이다. 이러한 질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정치구조와 경제구조의 상관관계 속에서 연구되었다.³⁾ 일례로, 고전적인 무어(Barrington Moore)의 연구에 의하면 대규모 노동력을 고용하는 플랜테이션 농업 체제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이 어려운데, 그 이유는 대토지 소유계급은 노동통제를 위한 억압적 국가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 자유 등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적·사회적 분위기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곳에서는 민주적 제도의 발전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Moore 1966). 즉,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 중미 북쪽지역 엘리트의 권위주의와 코스타리카와 같은 중미 남쪽지역 엘리트의 민주적 경향 사이에 대조는 중미 북쪽지역에서 대규모 수출농업의 노동억압적 성격과 중미 남쪽지역에서 소농의 중요성 차이에서 기원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리카 대륙 발견 500주년 주간에 발표되었는데, 인디오 원주민인 맨추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노벨 위원회는 사회적 정의와 인종문화간의 화합을 위한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 상을 수여했다.

2) 중미지역 평화에 대한 업적으로, 특히 1987년 8월 7일 과테말라에서 조인된 평화조약을 이룬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다. 아리아스 대통령은 중미 나라들간 오랜 분쟁과 국지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조약 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3) 선행연구로는 Moore(1966), Santana Cardoso(1977), Flora(1981), Winson(1989), Yashar(1992) 등이 있다.

여러 엘리트 개념이 있으나,⁴⁾ 본 연구에서 엘리트란 중미의 역사적·사회적 특징에 의해 기본적으로 가문, 혈통, 지위에 기반을 두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경제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을 경제엘리트, 정치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을 정치엘리트로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엘리트는 엘리트개념의 복잡성 보다는 지배계급, 지배엘리트, 통치엘리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16~18세기 스페인 식민시대 중미의 엘리트는 스페인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독립이후 19세기에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엘리트는 독일 투자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고 독일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에 코스타리카 엘리트는 영국 투자자가 많아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20세기부터 중미 대부분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세계 중심의 변화는 중미 엘리트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연구목적은 역사적으로 유사성을 보여주는 중미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는 엘리트가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며, 코스타리카에서는 엘리트가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데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그리고 ‘왜’ 발생했느냐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중미의 정치적·경제적

4) 사전적 의미로 엘리트는 지위나 교육에 의해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엘리트의 개념도 시대와 장소 그리고 사회구조와 정치체제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초기 엘리트이론에 대한 논의 중에서, 파레토(Vilfredo Pareto)는 엘리트란 “직접적으로 정치권력을 행사 하던가 또는 정치권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로 규정하고 통치권 행사에 대한 역할에 따라 통치엘리트(governing elite)와 비통치엘리트(nongovering elite)로 구분한다(Pareto 1935). 한편 모스카(Gaetano Mosca)는 엘리트를 “정치적인 지배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한 인사들이거나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로 규정한다(Mosca 1939). 이들 초기 엘리트 이론가들에게 엘리트 개념은 주로 통치 엘리트와 피통치 엘리트간의 구분에 관심을 두며 엘리트 개념을 지배계급, 지배엘리트, 통치엘리트와 동일시 했다. 현대의 엘리트 개념 중에서 라스웰(Lasswell)은 엘리트란 정치체제에서의 권력 소유자로 구성되며, 이들 권력 소유자는 정치지도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되는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성체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Lasswell 1961). 보트모어(T.B. Bottmore)는 엘리트란 한 사회의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집단으로 정의했고(Bottmore 1964), 또한 토마스 다이(Tomas R. Dye)는 제도 엘리트(institutional elite)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엘리트란 사회 내에서 권력 역할을 점유하는 사람들로서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이같은 역할은 제도화 된다고 지적한다(Dye 1976).

특징을 살펴보고,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의 특징을 살펴봄, 엘리트 구성에서 아직도 그러한 특징이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정치적 특징은 정치철학, 정치문화, 정치참여 등을 살펴볼 것이다. 경제적 특징은 아직도 중미 대부분이 1차상품 수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업부문을 살펴보려 하고, 농업부문 중에서도 커피부문을 살펴보려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총수출에서 커피의 비중이 1980년대에는 약 31%를 상회하고, 1990년대에는 약 28%를 상회하는 등 높게 나타나고 있다.⁵⁾ 역사적으로 중미 각국은 1850-1860년대를 전후로 본격적인 커피수출을 시작한다.⁶⁾ 그리고 커피는 생산, 제조공정, 수출 등 여러 부문과 관계가 있어서 경제구조와 정치구조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유용하다. 중미의 경제 엘리트를 살펴보기 위해 커피생산, 커피공정, 커피수출과 관련있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중미의 정치 엘리트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한 자료에서 성별구성, 연령, 교육수준, 외국유학경험 등을 분석하려 한다. 본 연구는 1903년 미국의 도움으로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한 파나마와 198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벨리세 등이 지리적으로 중미에 속하나 역사적으로 다른 중미와 차이로 인해 제외하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5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중미 엘리트의 기원과 특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중미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제4장에서는 중미의 경제적

5) 총수출에서 커피의 비중(%)

국 가	1980	1985	1990
과테말라	31.9	39.5	27.8
엘살바도르	36.4	56.1	45.9
온두라스	25.5	25.7	26.2
니카라과	38.0	31.4	22.4
코스타리카	25.6	34.0	18.0

자료: *Anuario estadíst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03, 99-107.

6) 코스타리카는 1843년, 과테말라 1855년, 엘살바도르 1856년, 니카라과 1860년대, 온두라스 1880년대에 각각 커피수출을 시작했다(Williams 1994, 31).

변화를, 제5장에서는 현대 엘리트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II. 중앙 아메리카 엘리트의 기원과 특징

스페인 식민시대에 중미는 과테말라 총독령(Capitanía General)에 속해 있었다. 멕시코가 독립하면서 황제가 된 이투르비데(Iturbide)는 중미를 멕시코에 복속시켰으나, 중미는 1823년 중미연합(Provincia Unidas del Centroamérica)을 유지하다가,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해 중미연합은 1838년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5개국으로 독립하게 된다.

당시 중미 통합에 저해 요소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첫째, 중미 5개국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과테말라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즉 과테말라가 비례대표 원칙에 따라 중미연방의회에서 높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책결정을 지배하려는데서 증폭되었다. 둘째, 연방헌법이 각 지역의 자치와 독립을 부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율권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고, 중미 지역 엘리트는 그들 통치지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내정에도 관여함으로써 중미연합의 직접적인 분열요인으로 작동했다(민만식 1992, 43-44).

중미 5개국 엘리트의 특징은 각국의 독특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통해서 발전된 가치차이(value differences)와 관련이 있다. 즉 수출작물과 관련된 토지·노동·자본의 상대적 풍부함이나 결핍과 관련된 생산과정에서 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Paige 1997, 7; Stone 2001, 2-4). 식민초기 중미에는 중요한 귀금속 광산이 없어 스페인 왕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북쪽지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원주민, 비옥한 토지, 군사적·정치적 중요성 등으로 관심이 부각되었으나 코스타리카 같은 남쪽지역은 원주민이 적어 노동력이 부족했고 토지도 비옥하지 않아서 관심이 높지 못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스페인 귀족은 북쪽지역인 과테말라

와 엘살바도르에서 수출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점차로 남쪽지역인 코스타리카로 확대되었다.

정복자와 스페인 귀족은 식민시대부터 지배계급을 구성했고, 이 지배계급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 접근이 가능했다. 이들은 당시 중미의 사회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식민지배를 위해 자연스럽게 중미 5개국에서 활동했으며, 현대 중미 엘리트의 기원이 된다. 식민초기에 정복자와 귀족의 자손들은 수출을 위한 농업, 금·은광산, 목축 분야에서 활동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유망한 분야는 광산과 농장 경영이었는데, 금·은 광산자원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북쪽지역이 남쪽지역 보다 더 풍부했고, 토지의 비옥도도 북쪽이 코스타리카 같은 남쪽지역 보다 높았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이 정복자와 귀족의 자손들에 의해 독점되었다. 따라서, 토지 비옥도가 높고 노동이 풍부하며 이에 따라 자본이 몰리면서 중미 북쪽지역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엘리트는 주로 경제분야에 종사했고, 독립이후에도 이들은 경제활동에 종사했으며, 정치분야는 다른 사회계급에게 위임했다. 반대로 토지 비옥도가 낮고 노동이 풍족하지 않으며 자본도 부족한 중미 남쪽지역인 코스타리카에서 엘리트는 경제분야 보다는 주로 정치·행정 분야에 종사했다(Guillén 1989).

1823년 중미가 독립했을 때, 중요한 커피 경작지들은 스페인 귀족이거나 그들의 후손 소유가 대부분이었고, 식민시대 정복자, 귀족 후손들은 현재까지 중미의 중요한 엘리트로 남았었다. 즉, 스페인 정복자였던 크리스토팔 데 알파로(Cristobal de Alfaro), 후안 바스케스 데 코로나도(Juan Vázquez de Coronado), 호르헤 데 알바라도(Jorge de Alvarado) 등의 자손들은 현대에도 중미의 엘리트를 구성하고 있다(Stone 2001, 4). 현재 스페인 정복자 3 가문의 후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관료로서 중미의 파워 엘리트를 형성하고 있다.

<표 1> 중요한 중미 가문 출신의 대통령

국 가	대 통 령	
과테말라 (총 3명)	마에스트레(Maestre) 가문	1
	마르틴 델 세로(Martín del Cerro) 가문	1
	알파로(Alfaro) 가문	1
엘살바도르 (총 11명)	부에나 페데 (Buenafede) 가문	1
	마르틴 델 세로(Martín del Cerro) 가문	6
	알바라도(Alvarado) 가문	2
온두라스 (총 4명)	알파로(Alfaro) 가문	2
	보그랑(Bográn) 가문	2
	알바라도(Alvarado) 가문	1
니카라과 (총 41명)	알파로(Alfaro) 가문	1
	차모르(Chamorro) 가문	5
	콰드라(Cuadra) 가문	8
	라콰요(Lacayo) 가문	9
	알바라도(Alvarado) 가문	1
	바스케스 데 코로나도(Vázquez de Coronado) 가문	11
코스타리카 (총 109명)	알파로(Alfaro) 가문	7
	곤살레스(González) 가문	8
	아코스타(Acosta) 가문	24
	알바라도(Alvarado) 가문	18
	바스케스 데 코로나도(Vázquez de Coronado) 가문	23
전 체	알파로(Alfaro) 가문	36
		168

자료: Samuel Z. Stone(1990), *The Heritage of the Conquistadors: Ruling Classes in Central America from the Conquest to the Sandinistas*, Lincon, Neb.: University of NebraskaPress, p. 27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 정복자인 크리스토팔 데 알파로 가문은 니카라과에서 7명의 대통령, 코스타리카에서 38명의 대통령, 온두라스에서 1명의 대통령, 엘살바도르에서 2명의 대통령, 과테말라에서 1명의 대통령의 조상이다. 즉 크리스토팔 데 알파로는 중미 대통령 50명의 조상이다(파나마에서 1명의 대통령 배출). 후안 바스케스 데 코로나도 가문은 코스타리카에서 23명의 대통령의 조상이고, 니카라과의 11명의 대통령의 조상으로서 중미에서 총 34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다. 호르헤 데 알바라도 가문은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정복자로서 코스타리카에서 18명의 대통령의 조상이고,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에서 각각 1명의 대통령의 조상이다(Stone 1990, 26).

<표 2> 중미 엘리트의 특징

	중미 북쪽지역 (파테말라, 엘살바도르) 토지비옥도↑, 노동력↑	중미 남쪽지역 (코스타리카) 토지비옥도↓, 노동력↓
1. 엘리트의 기원	식민시대 정복자귀족 가문	식민시대 정복자귀족 가문
2. 엘리트 중점참여영역	경제분야	정치분야
3. 지배 형태	간접지배(대리인)	직접지배
4. 정부 형태	권위주의적	민주적
5. 토지소유 형태	소수가 대토지 소유	다수가 소토지 소유

중미에서 엘리트의 권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써, 첫째, 혁명을 유발시키는 정치적·경제적·제도적 후퇴는 오히려 엘리트 지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개인의 안전·자본·신용·시장·안정된 법률환경 등의 부재로 인해 사업과 경제적 성공 요인으로 가족적 연고가 가장 안전한 요소로 작용했다. 셋째, 자본부족과 단일상품경제로 인해 새로운 기업을 위한 자본은 전통적 엘리트의 자본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엘리트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제한된 발전으로 인해 엘리트 후손의 외국유학은 전문직과 정치입문을 용이하게 했다(Paige 1997, 26-27).

중미에서 엘리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엘리트 내부에서 어느 정도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치 엘리트의 높은 상관성은 인척관계와 결혼이라는 요인이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경제적 자원의 풍부함은 권위주의로 발전했다는 것이다(Stone 1990, 131-132). 식민시대 귀족계급의 후손들은 공직에 독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회 지배계급이 되었다. 물론 모든 귀족계급의 후손들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귀족계급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공직에 오를 수 없었고, 이러한 경향은 독립이후 정치체제 안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 독립시 독립에 서명한 28명의 독립서명자

는 모두 식민 정복자와 귀족의 후손들로서, 이중 23명은 서로 인척 관계에 있는 같은 가문 사람이었고, 독립 이후에 이들은 코스타리카의 파워 엘리트가 되었다(Stone 1990, 111). 토지의 비옥도가 높고 원주민이 풍부해 생산을 조직하기 용이했던 중미 북쪽지역 엘리트는 일찍부터 이윤창출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을 취했다. 반면에 토지의 비옥도가 낮고 노동력이 풍부하지 않았던 중미 남쪽지역 엘리트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 필요했다. 게다가 과테말라는 식민시대부터 중미의 내부교역과 외부교역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지만, 코스타리카는 식민모국인 스페인의 경제적 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이 미진했으나, 독립이후 스페인의 경제적 제한에서 자유로워진 코스타리카는 당시 중미에서 전무했던 커피재배를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미 북쪽지역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엘리트는 정치안정과 자본축적을 위해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형태로 인해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직접지배 방식 보다는 간접지배 방식을 선호했고, 중미 남쪽지역인 코스타리카 엘리트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전통적으로 직접지배 방식으로 정치·사회안정을 추구했다.

III. 중앙 아메리카의 정치·사회적 특징과 변천

독립이후 중미는 스페인 식민시대부터 유래하는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제도와 관련이 있는 정치철학이다. 하나는 16-17세기의 합스부르크적 정치철학으로써 세금징수기관과, 공공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국가기구의 중앙집권적 역할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합스부르크적 정치철학에 따라 도로·항구·병원·학교 등 사회공공재 공급을 중앙집권적 국가기관이 아닌 교회·지역조직·기업 등에게 허용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8-19세기의 부르봉적 정치철학으로써 자본·토지·노동 등에서 경제발전과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립

이후 중미에는 공공재 공급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가와 준국가적 기구의 역할에 대한 엘리트 간의 의견이 분리되어 있었다. 합스부르그적 정치철학은 교회나 준국가기구의 선도 하에서 상황에 서서히 적응하는 것으로써 보수적 정당과 관련이 있고, 좀 더 국가개입적인 관점인 부르봉 정치철학은 진보적 정당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철학과 정당과의 관련성은 과테말라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록, 시대가 발전할수록 약화되었다(Williams 1994, 198-199).

일반적으로 중미에서 엘리트의 참여영역은 정치와 경제 부문이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북쪽지역 엘리트는 경제부문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그 이유는 수출 작물을 위한 토지·노동·자본의 상대적 풍부함은 코스타리카 같은 남쪽지역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조직하기가 훨씬 용이했기 때문이다. 북쪽지역 경제엘리트는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직을 중요시 했다. 그리고 외무부·경제부 장관에는 엘리트 가문 출신을 지명함으로써,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경제부 장관을 통해 경제에 대한 직접통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수출과 관련이 있는 환율관리도 중요했다.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억압적이고 표면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엘리트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다른 사회계급에서 선출한 군부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군부는 엘리트로부터 위임된 임무를 수행했다. 일반 병사와는 달리 고위직 군장교에게는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봉급 및 수당이 지급되었고, 이들은 엘리트가 위임한 권한의 한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중미 북쪽지역의 경제엘리트는 국가와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련을 맺고있다.

중미 남쪽지역인 코스타리카 엘리트는 토지 비옥도가 낮고 노동력도 부족해서 경제분야 보다는 고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특권이 있는 공공분야에서 직업을 구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적 방식을 취했다. 즉 독립이후에 커피를 경작했고 목축업에도 종사했으나, 20세기에 와서는 공공분야나 정부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급속히 증가했다(Stone 1990, 20).

중미의 정치문화로써 엘리트의 지배방식을 보면, 중미 북쪽지역인 과테말라는 독재자의 수가 5명이고 이들의 통치기간은 74년으로 가장 길고, 엘살바도르도 독재자의 수가 6명이고 이들의 통치기간은 44년이었다. 반면에 코스타리카는 독재자가 2명이고 이들의 통치기간은 19년이다. 따라서 스톤(Stone)의 관점에 의하면, 북쪽지역인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엘리트는 보다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보여주고 있고, 남쪽지역인 코스타리카 엘리트는 상대적으로 덜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엘리트는 주로 경제에 관심을 갖고 코스타리카 엘리트는 행정부 등 공공분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공공분야 참여율과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비를 보면, 2003년 과테말라 국방비는 2억 달러로 중미에서 가장 높고, 엘살바도르는 1억5천 달러이며, 코스타리카는 6천4백만 달러이다. 따라서 군대가 없는 코스타리카 국방비가 가장 낮다(미 CIA 2004). 공공폭력(public violence)의 증가와 세계화로 중미에서 미국과 무기거래와 군사협력이 증가했는데, 미국과 중미의 군사협력은 일방적 관계로 변모했고, 중미의 안보는 중미 각국의 안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미와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정보협력에 의한 일방적 예측관계로 대체되었다(Holden 2004, 119-133).

<표 3> 중미의 독재

국 가	독재자 수	독재 기간
과 테 말 라	5명	74년
엘살바도르	6명	44년
온 두 라 스	2명	24년
니 카 라 과	6명	66년
코스타리카	2명	19년

자료: Stone(1990, 25)

<표 4> 경제활동인구의 공공부문 비중(1985)

국 가	%
과 테 말 라	9.0
엘살바도르	7.0
온 두 라 스	11.0
니 카 라 과	13.0
코스타리카	17.0

자료: Stone(2001, 4)

정치참여와 관련있는 정당의 역할을 보면,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경쟁력 있는 전국적 정당이 부재한 반면에 코스타리카에서는 대중정치에 선행하는 경쟁력 있는 전국적 정당이 존재한다.⁷⁾ 정당이탈(Party Disloyalty)에 대한 인식을 보면, 북쪽 지역인 과테말라와 남쪽 지역인 코스타리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치인이 정당을 바꾸는 것에 대해 과테말라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격한데 반해, 코스타리카에서는 정치인의 정당소속 변화를 보다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다. 왜냐하면 중미 북쪽지역은 정치적 연대감이 높고, 정당에서 정서적 관계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 그러나 남쪽지역 국가인 코스타리카에서 정치인들은 정기적 선거를 통해 정치

7) 1990년까지 중남미의 보수정당과 민주주의

국 가	경쟁적인 전국적 보수정치 유무	민주주의 기간	비민주적 통치기간	비민주적 기간 대비 민주적 기간 비율
칠 레	예	45	24	1.9
콜롬비아	예	45	9	5.0
코스타리카	예	48	2	24.0
우루과이	예	67	20	3.4
아르헨티나	아니오	40	38	1.1
브라질	아니오	24	36	0.7
멕시코	아니오	8	62	0.1
엘살바도르	아니오	6	53	0.1
온두라스	아니오	24	18	1.3
니카라과	아니오	0	54	0
과테말라	아니오	14	45	0.3

자료: Dominguez(1996, 29)

가 변화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들 자신의 위상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변화가 일반적이고 국민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Stone 1990, 85).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북쪽지역은 투표율이 낮고, 코스타리카 같은 중미 남쪽지역은 투표율이 높다. 평균 기권율을 보면,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높게 나타나고, 코스타리카는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북쪽지역 국가는 정치참여율이 낮고, 남쪽지역의 국가는 정치참여율이 높다.⁸⁾

엘리트와 국민과의 관계를 보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북쪽지역 엘리트들은 원주민이 많아 생산을 조직할 때 노동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을 대할 때는 권위적이었다. 북쪽지역 엘리트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대면적 관계는 거의 없었고 혼혈인인 메스티조가 엘리트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대신했다. 반면에 코스타리카 같은 중미 남쪽지역에서 엘리트는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산을 조직할 때 항상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다음 시기의 안정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민과의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관계가 필요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대부분이 소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농이고 극단적인 불평등의 부재로 평등주의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가 식민시대부터 존재했다. 일례로,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8) 중미 5개국 국회의원 투표율

국가	투표율(%)						평균	투표기권율(%)						평균
	1985	1990	1994	1995	1999			1985	1990	1994	1995	1999		
과테말라	52.1	42.9	15.4	40.5	44.0		38.9	47.9	57.1	84.6	59.5	66.0		61.1
엘살바도르	45.7	41.6	40.8	40.7	34.9	34.4	39.6	54.3	58.4	59.2	59.3	65.1	65.6	60.4
온두라스	72.2	81.9	79.5	67.8	69.2		74.1	27.8	18.1	20.5	32.2	30.8		25.9
니카라과	75.4	75.1					75.2	24.6	24.9					24.8
코스타리카	76.0	74.9	79.0	77.8	73.0	61.5	73.7	24.0	25.1	21.0	22.2	27.0	38.5	26.3
전체평균	60.3							39.7						

자료: <http://observatorioelectoral.org>

에서 농민의 결혼식이 있을 때, 이들은 대지주에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고 초대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대지주가 결혼식에 참석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농민 자녀의 대부(compadre)가 되어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반면에 코스타리카에서 농민의 결혼식에 지주는 초대되고, 초대되었을 때 지주는 결혼식에 참석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농민 자녀의 대부가 되어주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중미 북쪽지역에서는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엘리트는 최소임금제, 노동법, 노동복지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즉 엘리트는 비용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신경쓰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엘리트의 무관심은 중미 북쪽지역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심하다. 이러한 결과로써 북쪽지역 국가의 노동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그러한 해결은 자주 대통령 수준에서 해결된다. 반면에 중미 남쪽지역은 식민시대부터 노동력이 부족해서 엘리트는 경제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노동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획득을 위해 경쟁했다. 또한 엘리트와 국민과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문화 때문에 중미 남쪽지역 국가에서 노동부장관은 영향력이 클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엘리트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표 5> 중미의 정치적 특징

구 분	정치 철학	정부 참여 방식	정치 문화	국민과의 관계	투표율	정당의 역할	정당이탈에 대한 국민의 관용도	경제활동 인구에서 공공부문 비중
중미 북쪽지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합스 부르그적	간접적, 부분적	권위적	간접적, 대리인	낮 음	전국적 정당부재	낮 음	낮 음
중미 남쪽지역 (코스타리카)	부르봉적	직접적, 전체적	민주적	직접적, 대면적	높 음	전국적 정당존재	높 음	높 음

IV. 중앙 아메리카의 경제적 특징과 변천

커피는 17세기와 18세기에 무역품이었지만, 산업혁명이 유럽과 미국으로 확대되면서 19세기에 이르러 중요한 음료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바람을 이용한 범선에서 1840년대 선박 스팀엔진이 개발됨으로써 중미에도 일반적인 선박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또한 1850년대 파나마에서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쉬로 인해 중미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교역이 증가했다.

영국 산업혁명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하면서 중미는 이미 중요한 수출품목으로 코치닐이나 인디고 같은 염료의 거래가 있어왔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인조염료가 개발됨으로써 당시 중미의 주요한 수출품목인 코치닐과 인디고의 수출이 급감했다(Williams 1994, 15). 이러한 시기에 스팀엔진을 이용한 선박이 중미에 접근이 가능함으로써 토양과 기후가 커피생산에 적합함에 따라 커피생산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범선일 때는 불가능했으나 증기선으로 인해 중미에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코스타리카는 1830년대에 커피수출 가능성을 인식했고, 1850년대에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1860년대에는 니카라과가 커피수출 가능성을 인식했다.

코스타리카의 빠른 커피 재배와 수출은 스페인 식민 당시 자유무역제재로 불가능했으나, 독립이후에 그러한 제한이 소멸되었고 커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870년대 중반 많은 자본이 커피생산에 몰리게 되었고, 1880년대에는 중미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되었다. 19세기 말에 중미는 세계 커피생산의 1/10을 차지했다(Williams 1994, 16).

중미에서 커피 재배와 생산을 살펴보면, 표6)에서 과테말라는 중미의 어떤 지역 보다 커피재배 면적과 생산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과테말라는 커피재배 면적과 생산 측면에서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보다 집중도(concentration)가 높게 나타난다.

과테말라 경우 재배면적 측면에서 대기업농이 전체의 약 2/3를 차

지하고(66%), 기업농이 약 17%를 구성한다. 커피재배 면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1,891,201)가 니카라과(474,683) 보다 약 3배를 더 생산한다. 따라서 커피생산에 대한 절대적 부와 잠재적인 측면에서 엘살바도르 경제엘리트가 니카라과 경제엘리트 보다 지배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코스타리카의 경우 재배면적 측면에서 소농(33%)과 대규모 기업농(21%) 모두 중요함을 관찰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 소농(소농+가족농)은 커피재배 면적 측면에서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 보다 약 2배 정도 크고, 생산 측면에서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 보다 약 3배 중요함을 관찰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 대기업농은 재배 면적과 생산 측면에서 과테말라 보다 약 3배 정도 부족함을 관찰할 수 있다.

<표 6> 커피규모에 따른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

범 주	재 배 면 적	코스타리카 (1955)		니카라과 (1957)		엘살바도르 (1940)		과테말라 (1966)		
		농장수	전체 비중	농장수	전체 비중	농장수	전체 비중	농장수	전체 비중	
재배 면적(Manzana)										
소 농	0-4.9	19,049	33.6	5,762	11.4	9,768	18.9	25-30,000	11.6	
가족 농	5-9.9	1,775	14.2	2,059	13.1					
소경영농	10-49.9	979	22.1	1,256	22.6	1,322	27.4	606	4.6	
기업 농	50-99.9	101	8.6	314	19.2	263	16.4	1,148	17.2	
대기업농	100+	83	21.6	212	33.6	192	37.3	636	66.5	
소 계		21,987	100.1	9,603	99.9	11,545	100.0	330,900	99.9	
총 재 배 면 적		80,574		123,253		117,216		330,900		

범 주	재 배 면 적	코스타리카 (1955)		니카라과 (1957)		엘살바도르 (1940)		과테말라 (1966)	
		농장수	전체 비중	농장수	전체 비중	농장수	전체 비중	농장수	전체 비중
커피생산(Quintales)									
소 농	0-4.9	5.6	29.5	1.2	3.5	7.4	13.5	-	13.1
가족 농	5-9.9	5.7	12.7	2.7	9.3				
소경영농	10-49.9	5.9	20.3	3.9	22.9	10.7	28.4	12.8	7.3
기업 농	50-99.9	7.3	9.8	4.3	21.3	12.5	19.7	8.6	17.1
대기업농	100+	8.2	27.7	4.9	42.9	11.9	38.4	7.6	62.4
소 계		6.5	100.0	3.9	99.9	10.6	100.0	6.6	99.9
총 생산		522.998		474.683		1.891.201		2.188.517	

자료: Paige(1997, 60-61)

* 1 Quintal=100lbs.

** 1 manzana=0.69 헥타

*** 소 농: 가족의 노동으로 커피재배 가능.

가족 농: 가족의 노동으로 충분하나 수확기에 최소의 노동고용이 필요한 농장.

소경영농: 약간의 추가적 노동으로 충분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경영과 노동으로 충분한 농장.

기업 농: 경영 측면에서 고용이 필요하고 노동 측면에서도 고용이 필요한 기업적 농업.

대기업농: 여러 기업농을 합친 규모의 농업.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커피재배 면적, 생산 측면에서 중미 각국은 서로 다른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100 만사나(manzana:mz.) 이상 규모의 생산에서 엘살바도르 생산자는 단위당 면적이 과테말라 생산자 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적은 토지에서 보다 많은 수확을 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이 비슷한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 보다 효율성이 높고 따라서 이윤율이 높다. 코스타리카 평균생산은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 평균생산 보다 약간 뒤처지고 있고, 니카라과는 단위당 평균생산이 중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비록 커피재배 면적과 생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도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엘

살바도르의 커피 생산자와 낮은 생산성을 갖는 니카라과의 커피 생산자는 중미에서 경제적으로 강한 계급과 약한 계급으로 나타나고 있다.

50 만사나 이상의 재배면적과 생산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력은 과테말라 엘리트가 엘살바도르 보다 약 2배, 니카라과의 약 3배, 코스타리카의 약 8배가 됨을 알 수 있다. 50 만사나 이상의 생산에서 과테말라처럼 엘살바도르도 높은 편에 속하지만, 과테말라 경제 엘리트가 토지에 대한 지배력은 엘살바도르 경제 엘리트 보다 2배가 더 높다.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는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에서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 뒤쳐져 있다. 단위당 커피생산에서 코스타리카 경제 엘리트가 니카라과 보다 좀 더 생산하고 있지만, 계급으로서의 코스타리카 경제엘리트(24)는 니카라과 경제엘리트(65) 보다 약체이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 비해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의 상대적인 약체성은 서로 다른데, 니카라과 엘리트의 약체성은 비효율성에서 기인하고, 코스타리카 경제 엘리트의 약체성은 소규모 토지소유 계급으로서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Paige 1997, 57-69).

<표 7> 기업농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

국 가	기업농(Estate Producer) 커피 재배면적			
	100mz. 이상		50mz. 이상	
	평균재배면적 (mz)	평균생산 (qq)	총재배면적 (mz)	총생산 (qq)
과테말라	342	2,479	202.1	1,278.3
엘살바도르	228	2,713	95.6	1,098.8
니카라과	195	955	65.1	304.8
코스타리카	210	1,722	24.7	196.1

자료: Paige(1997, 66)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엘살바도르 경제엘리트는 생산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테말라 경제엘리트는 생산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토지와 사람에 대한 통제력은 훨씬 크다. 19세기 이래로 과테말라 커피 생산 체계는 다양한 강제력을 동원하여 통제할 수 있었다. 즉, 국가는 농민에 대해 특정일수에 해당하는 강제노동을 요구할 수 있었고, 부채를 대신하는 강제노동도 가능했다. 또한 과테말라 상속법에 의해 부채가 승계되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통제력이 높다(Paige 1997, 69). 강제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제도는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도입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니카라과에서는 회사상점(company stores)을 운영했고, 엘살바도르에서는 노동통제를 위한 지역경찰(rural patrols)을, 코스타리카에서는 농장주택(estate housing) 등을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경우는 약간 독특하는데 그것은 과테말라 경제엘리트에 의해 운영된 비공식적 강제력과 국가에 의한 공식적 군사력에 후원을 받으면서 강제노동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의 구축이다. 과테말라에서 대부분의 생산가능한 대토지의 소유, 국가의 지원하에 강제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통제력 등은 과테말라 경제엘리트가 중미의 다른 커피 생산국보다 많은 정치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중미의 경제적 변화 중에서 중요한 것은, 20세기초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된 대서양 쪽의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자본이 중심이 된 바나나 산업개발은 가장 특이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면화, 설탕, 목축, 기타 농업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1950-1960년대에는 절대적인 토지의 부족을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극복하려했던 중미공동시장이 창설되었고, 199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수출자유지역을 설립했다.

V. 현대 중앙 아메리카 엘리트의 특징

중미의 경제 엘리트를 보기 위해서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커피경작, 커피공정, 커피수출 분야 등에서 커피관련 경제 엘리트들을 중심으

로 살펴보려 한다. 기본적으로 중미 경제 엘리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미 경제 엘리트를 살펴보기 위해 윌리엄즈(Robert G. Williams)의 자료를 기초로 했음을 밝혀둔다. 중미의 정치 엘리트에 대해서도 자료부족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입수가 가능한 관료, 정치인을 중심으로 그들에 대한 성별, 연령, 교육, 외국유학 등에 대해 분석했다.

V.1. 중앙 아메리카의 경제 엘리트

중미에서 경제엘리트와 정치엘리트는 친척관계와 결혼으로 서로 간의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표 8>은 독립 때부터 현재까지 중미에서 커피생산, 커피공정, 커피수출 등 커피와 관련있는 대통령의 비중을 알 수 있는데, 북쪽지역인 과테말라 경제엘리트의 정치참여는 16%이고, 엘살바도르는 20%인데 반해, 중미 남쪽지역인 코스타리카 경제엘리트의 정치참여는 78%로 나타난다. 따라서 중미 북쪽지역은 경제엘리트의 정치참여가 낮고, 중미 남쪽지역은 경제엘리트의 정치참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8> 정치에 참여한 경제엘리트(대통령을 중심으로)

국 가	기 간	전체 대통령수	커피 관련 대통령 수	비 중(%)
과테말라	1844 ~ 1970	31명	5명	16%
엘살바도르	1841 ~ 1972	81명	17명	20%
온두라스	1841 ~ 1986	42명	1명	2%
니카라과	1853 ~ 1979	29명	17명	58%
코스타리카	1824 ~ 1994	42명	33명	78%

자료: Williams(1994, 212-219). * 자료 재정리.

중미 북쪽지역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경제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대규모 커피재배 방식으로 운영했고, 노동공급을 위해서 마을 공동소유지의 사유화를 통해 농민을 토지에서 이탈시키는 방법

으로 노동을 공급했다(Dutrénit 1989, 306-310). 반면에 중미 남쪽지역인 코스타리카에서는 가족농이 일반적인 형태였으며, 노동공급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보다 훨씬 부드럽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행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타리카의 경제 엘리트는 커피 수확기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커피 생산에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스타리카의 경제 엘리트는 커피생산에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보다 자본집약적인 부분에 집중했는데 특히, 커피 공정부분에 많은 자본을 투자했다. 즉, 코스타리카 경제 엘리트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동력을 자본으로 대체했고, 커피 알갱이를 벗기는 과정을 기존의 건식방법에서,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만 커피의 맛과 향이 뛰어난 습식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윤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이후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의 커피 알갱이를 분류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했다. 따라서 코스타리카 경제 엘리트의 자본축적 양식은 대규모 커피농장 소유권에 있지 않았다. 오늘날 코스타리카 경제 엘리트는 19·20세기 커피엘리트의 후손으로서 커피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과테말라에서 경제엘리트의 부는 대규모 플란테이션 소유권에 있고, 많은 가난한 농업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변혁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100년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커피엘리트 대부분이 커피재배 이전의 과테말라 엘리트 후손은 아니다(Williams 1994, 172). 다시 말하면, 코스타리카 경제 엘리트와 비교하여 과테말라 경제 엘리트의 급격한 변화의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테말라 경우에는 커피재배 부분에 많은 자본을 투자했고, 코스타리카는 커피공정 부분에 보다 많은 자본을 투자했다. 따라서 커피 국제가격이 낮을 때, 과테말라 경제 엘리트의 커피 생산은 코스타리카 보다 더 세계시장 가격에 노출된 위험한 체계이다. 코스타리카 경제 엘리트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커피 재배부분보다는 공정과정에 보다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커피가격이 낮더라도 커피 공정과정에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커피를 구매함으로써 이익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

었다. 그러나 과테말라에서 경제 엘리트는 그들 자신이 대규모 농장을 직접 경영함으로써 국제가격 폭락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기 침체시에 과테말라 경제 엘리트는 그들의 커피농장을 매매할 수 밖에 없었다. 과테말라 경제 엘리트의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은 정치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정치적 취약성은 국내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이기도 한데,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써 과테말라에서 경제 엘리트의 빠른 성장은 대부분 정부개입에 기인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집중화된 국가권력은 토지·자본·노동을 커피 분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국제 정치적인 요인으로써 과테말라의 진보정권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인들이 과테말라 커피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압력으로 독일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몰수했고, 전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과테말라 정부는 또 다시 미국의 압력으로 독일에게 토지와 경작되지 않은 토지 등 상당한 토지를 몰수했다. 그리고 몰수된 토지를 정부가 직접 관리했다. 1954년 예전의 토지 소유권을 복구하면서 과테말라 군사정부는 그들과 유착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의 커피 엘리트는 코스타리카에서 보다 더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과테말라에서 토지 소유권의 불안정을 인식하는 과테말라 경제 엘리트는 정부 보다 더욱 집요하게 토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과테말라 경제 엘리트는 1890년에 커피나무를 약 10만 그루 정도를 재배하는 커피 경작자 99명의 명단을 기준으로 1794 ~ 1934년 동안 명단을 비교 조사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과테말라 커피농장은 독립 이전에 귀족가문이 소유하던 토지로써, 귀족가문 후손들이 상속 받은 재산을 커피농장으로 전환·확대한 경우들이다.⁹⁾ 1930년대 독

9) 1887년 과테말라에서 독일출신 개인이 소유하는 커피농장은 25개이고, 공동소유권에 의한 커피농장은 66개였다. 1913년 독일계 커피농장은 170개로써 전체 과테말라 커피생산의 36%를 차지한다. 1933년 8명의 상위 커피생산자 중에서 5명은 독일계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과테말라에서 독일계 커피농장은 139개였는데, 독일계 커피농장 정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셌다. 이에 따라 1944년 독일계 커피농장 75개를 정발했다. 이때 국유화된 커피농장은 1970년초 22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1978년 정부 소유로 되어있던 20개 커피농장은 민영화 되었다.

일계의 커피 생산자의 생산은 중요했고, 과테말라 경제 엘리트는 커피수출분야 보다는 커피생산에 보다 많이 종사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과테말라 경제 엘리트는 규모의 경제와 새로운 기술의 잇점을 살리기 위해 현대적 기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테말라 경제 엘리트의 위상은 대규모 농장의 소유권과 다수의 가난한 농업 노동자에 대한 통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1세기 이상 지속되었지만, 오늘날 커피생산 부문에서 예전의 귀족가문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다.

<표 9> 과테말라의 경제 엘리트

구 분	1820	1794 ~ 1871	1930	1934
1820년의 귀족	6			
무역상		12		
커피 수출업자			5	
커피 경작자				16

자료: Williams(1994, 275 ~ 278) * 자료 재정리.

1. 1890년에 커피나무를 약10만 그루 정도를 재배하는 커피 경작자는 99명이고 커피농장은 112개.
2. 1933 ~ 1934 동안 2천 Quintal 이상을 생산하는 커피 경작자는 98명이고 커피농장은 125개.
3. 1930년 커피수출 회사는 19개.
4. 1794 ~ 1871 Consulado de Comercio 명단에서 60명의 성을 대조한 결과.

엘살바도르 경제 엘리트는 1921년에 커피수출업자 69명의 명단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자료이다. 엘살바도르에서는 1880년까지 상업은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경제 엘리트는 그들이 원하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1880년대 후반에 여러 개의 은행이 설립되면서 엘살바도르 경제 엘리트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중미 국가의 다른 나라들처럼 엘살바도르의 커피분야에서 자본부족은 외국인 투자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과테말라와는 달리 여러 국가의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20세기초 엘살바도르 경제 엘리트는 과테말라처럼 분열되어 있지 않았고, 엘살

바도르 정부도 특정집단이 아닌 전체로써 커피 엘리트의 이해에 보다 충실했기 때문에 과테말라 경우보다 경제 엘리트 변화가 소폭이었다. 1970년대 엘살바도르 경제 엘리트는 커피에서 면화, 설탕, 제조업, 통신,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현재 커피와 관련이 없는 엘살바도르 경제 엘리트의 경제적 부와 재산의 원천은 19세기와 20세기의 커피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니카라과 경제 엘리트는 1909년 약 10만 그루의 커피나무를 경작하는 커피 경작자 52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자료이다. 니카라과에서 19세기 중반의 경제 엘리트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종사했거나,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이 있는 전문직업인들이었다. 커피교역이 발달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니카라과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 접근하면서 수출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커피 농장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커피 생산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금융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단기대부와 함께 커피 붐은 장기대부도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니카라과 정부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중북부 지역이 커피수출 지역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력 공급을 위해 원주민 공동체를 해체하는 법령도 마련했다. 1933년 소모사가 니카라과 국방·치안 책임자가 되면서 1979년까지 소모사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니카라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으로 니카라과 가족소유의 재산은 국유화 되었고, 1990년 차모로 대통령은 투표에서 산디니스타 혁명정권에 대해 승리했다.

코스타리카 경제 엘리트는 1907년 커피농장소유주 192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자료이다. 코스타리카에서 상업은행의 성장은 커피 부문에서 장기대부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코스타리카는 중미에서 가장 중요한 커피 수출국이었고 이에 따라 상업은행도 코스타리카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코스타리카 커피 수출국으로써 영국은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커피생산과 대비되는 커피공정 과정에서 높은 수익률로 인해, 코스타리카 자본은 커피생산 부문에서 커피공정 부문으로 흘러들어 갔

다. 이러한 결과로써, 코스타리카는 효율적인 공정기계를 보유하고 커피수출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1980년대 코스타리카에서 커피생산은 증대했으나 커피공정공장은 감소했는데, 이것은 코스타리카의 커피부문에서 자본의 집적·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 코스타리카 경제 엘리트는 주로 수입상, 지주, 광산업자 등으로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었으나, 커피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작물로 부각되면서, 커피농장·커피공정공장·커피수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또한, 커피 boom은 코스타리카에서 소규모 농장주가 엘리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표 10> 엘살바도르의 경제 엘리트

구 분	1922	1930	1970~1971	1973~1974	1974	1970년대
커피공정공장 소유자	10	18				
커피경작자			22			
커피수출업자				15		
커피수출업자 및 커피공정공장 소유자					25	
250에이커 이상의 토지소유자						27

자료: Williams(1994, 279~281) * 자료 재정리.

1. 1921년 커피 수출업자는 72명.
2. 1922년 커피농장 소유주는 13명 명단을 기준으로 했고, 1930년 커피농장 소유주는 21명 명단을 기준으로 했음.
3. 커피 경작자, 수출업자, 농장소유자, 250 에이커 이상의 토지 소유자 명단은 1970년대초 서부 7개 주(department)를 조사한 자료.

세계 2차 대전 후에 코스타리카의 커피분야는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1948년 혁명으로 인해 커피 엘리트들이 대부분 소유했던 은행들이 국유화됨으로써 커피 엘리트의 헤게모니가 감소했다. 국유화된 은행들은 중·소규모의 커피 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커피공정 공장과 커피 수출업자의 전통적인 금융통제력이 약화되었다. 현재 코스타리카 경제 엘리트의 상층부는 아직도 19세기 초 엘리트 가문 후손들이다.

<표 11> 니카라과의 경제 엘리트

구 분	1867	1873	1892	1958
커피경작자	8		4	
커피수출업자		2	4	
커피경작 및 수출업자			8	
커피공정공장 소유자				20

자료: Williams(1994, 284~285) * 자료 재정리.

1. 1909년 약 10만 커피나무를 경작하는 커피 경작자는 52명.
2. 1892년 커피 경작자는 35명이고 커피 수출업자는 63명.
3. 1873년 수출보조금을 받은 커피 수출업자는 18명.
4. 1867년 마나구아(Managua) 커피 경작자는 25명이고 리바스(Rivas)의 커피 경작자는 7명.
5. 1957-1958년 커피농장 소유자는 100명.

<표 12> 코스타리카의 경제 엘리트

구 분	1850년 이전	1820~1850	1910	1981
상품 수입업자	41			
산호세지역의 커피경작자		55		
커피수출업자			63	
커피공정공장 소유자				88

자료: Williams(1994, 289~294) * 자료 재정리.

1. 1907년 커피 농장은 221개.
2. 1910년 커피 수출업자는 93개.
3. 1850년 이전 수입업자는 79명.
4. 1820-1850년 산호세 커피 경작자는 103명.
5. 1981년 커피농장 소유자 명단은 107명의 커피농장 소유자와 303명의 관리자 명단을 조사한 명단.

중미의 경제 엘리트에 대해서 요약하면, 정치에 직접 참여한(대통령 경우) 경제 엘리트는 과테말라 16%, 엘살바도르 20%이고, 반면에 코스타리카 경우는 78%이다. 중미 북쪽지역인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경제 엘리트는 주로 농업생산에 종사했고, 남쪽지역인 코스타리카의 경제 엘리트는 농가공 분야에 보다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2. 중앙 아메리카의 정치 엘리트

현대 중미 엘리트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정치 엘리트를 분석하려 한다.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국가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4개국이다. 자료접근이 불가능했던 과테말라를 제외하고 2004년 중미 각국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획득했다. 엘살바도르는 행정부 장관급 14명, 차관급 23명, 정부주요기관장 29명의 개인정보를 획득해서 총 66명이다. 온두라스 경우는 행정부 장관·차관·대통령비서실·주요기관장을 포함해서 총 27명이다. 니카라과의 경우는 행정부 장관급 8명과 입법부 총원인 89명을 합해 총 97명이다.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입법부 총원인 57명이다. 따라서 중미 4개국의 총 247명에 대한 성별구성, 연령, 교육수준, 외국유학경험 등에 대해 분석했다.

<표 13>에서 중미 정치 엘리트의 성별구성을 보면, 엘살바도르 경우는 총 66명 중에서 남성 75%, 여성 24%로 구성되어 있고, 온두라스 경우는 총 27명 중에서 남성 85%, 여성 14%로 구성되어 있다. 니카라과 경우는 총 97명 중에서 남성 75%, 여성 24%로 구성되어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총 57명 중에서 남성 64%, 여성 35%로 구성되어 있다.

중미 전체 247명 중에서 남성은 74%, 여성은 25%를 구성하고 있다. 중미에서 남성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온두라스이고, 남성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이다. 중미 전체에서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코스타리카이고, 여성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온두라스이다. 따라서 중미 엘리트 구성에서 남녀비율이 가장 균형적인 국가는 코스타리카로써, 성별에 따른 엘리트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반대로 성별에 따른 엘리트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온두라스로 나타났다.

<표 13> 중미 정치 엘리트의 성별구성

구 분	성 별		소 계
	남 성	여 성	
엘살바도르	50명(75.7%)	16명(24.2%)	66명
온두라스	23명(85.1%)	4명(14.8%)	27명
니카라과	73명(75.2%)	24명(24.7%)	97명
코스타리카	37명(64.9%)	20명(35.0%)	57명
총 계	183명(74%)	64명(25.9%)	247명

<표 14>에서 중미 엘리트의 연령구성을 보면, 엘살바도르 연령구성의 특징은 40대(31%) → 50대(28%) → 30대(7%)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많다. 온두라스 경우는 40대(33%) → 50대(25%) → 60대(14%) 순서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많다.

니카라과 경우는 40대(25%) → 50대(23%) → 30대(11%) 순서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많고 30대도 3위로써 중미에서 상대적으로 30대의 젊은 엘리트가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50대(26%) → 40대(21%) → 30대(7%) 순서로써 50대가 가장 많고, 니카라과 보다 비중은 낮지만 30대의 젊은 엘리트가 3위로써 위상을 갖고 있다. 중미 전체에서 연령구성을 보면, 40대(27%) → 50대(25%) → 30대(8%) → 60대(8%) 순서로써 세대별 나이 구성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세대별 갈등을 축소할 수 있고, 과거 엘리트의 경험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형성해 가고 있다. 6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국가는 온두라스로써 엘리트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었고, 30대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국가는 니카라과로써 엘리트가 가장 젊은 나라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미에서 나이는 엘리트의 진입장벽으로써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중미 정치 엘리트의 연령 구성

구 분	나 이							소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자료부재	
엘살바도르	1(1.5%)	5(7.5%)	21(31.8%)	19(28.7%)	4(6.0%)	1(1.5%)	15(22.7%)	66명
온두라스	0(0.0%)	2(7.4%)	9(33.3%)	7(25.9%)	4(14.8%)	0(0.0%)	5(18.5%)	27명
니카라과	1(1.0%)	11(11.3%)	25(25.7%)	23(23.7%)	10(10.3%)	3(3.0%)	24(24.7%)	97명
코스타리카	0(0.0%)	4(7.0%)	12(21.0%)	15(26.3%)	3(5.2%)	2(3.5%)	21(36.8%)	57명
총 계	2(0.8%)	22(8.9%)	67(27.1%)	64(25.9%)	21(8.5%)	6(2.4%)	65(26.3)	247명

<표 15>에서 중미 엘리트의 교육을 보면, 엘살바도르 엘리트의 교육정도를 보면, 대졸(53%) → 석사(34%) → 박사(6%)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대졸출신이 총 66명 중에서 3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두라스 경우는 대졸(55%) → 석사(37%) → 박사(7%)으로 나타나서 총 27명 중에서 대졸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다. 니카라과의 경우는 대졸(46%) → 석사(24%) → 박사(5%) 순서로 나타나서 총 97명 중에서 45명이 대졸출신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코스타리카 경우에는 대졸(61%) → 석사(17%) → 고졸이하(10%)로 나타나서 총 57명 중에서 대졸출신이 35명으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다. 중미 전체에서 보면, 대졸(52%) → 석사(27%) → 박사(5%)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247명 중에서 대졸출신은 13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고졸이하가 13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5> 중미 정치 엘리트의 교육수준

구 분	교 육 정 도					소 계
	고졸이하	대 졸	석 사	박 사	자료부재	
엘살바도르	4명(6.0%)	35명(53.0%)	23명(34.8%)	4명(6.0%)	-	66명
온두라스	-	15명(55.5%)	10명(37.0%)	2명(7.4%)	-	27명
니카라과	3명(3.0%)	45명(46.3%)	24명(24.7%)	5명(5.1%)	20명(20.6%)	97명
코스타리카	6명(10.5%)	35명(61.4%)	10명(17.5%)	3명(5.2%)	3명(5.2%)	57명
총 계	13명(5.2%)	130명(52.6%)	67명(27.1%)	14명(5.6%)	23명(9.3%)	247명

중미 엘리트에서 고졸이하 출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고졸이하 출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온두라스로 나타나고 있어 온두라스에서 교육에 의한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미 엘리트에서 대졸출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로써 국가 전체가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미 엘리트의 교육 수준에서 박사가 가장 높은 곳은 온두라스로써 교육에 의한 엘리트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교육에 의한 엘리트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나라는 코스타리카이다.

<표 16>에서 중미 엘리트에서 외국유학 유무를 보면, 엘살바도르에서 외국 유학경험이 있는 경우는 59%로 나타났고, 외국 유학경험이 없는 경우는 40%로 나타나고 있어 1/2 이상이 해외 경험에 있다. 온두라스 경우에는 외국 유학경험이 있는 경우는 74%이고, 외국 유학경험이 없는 경우는 25%로 나타나고 있어 2/3 이상이 해외 유학경험에 있다. 니카라과의 경우 외국유학 경험에 있는 경우는 31%이고, 외국 유학경험이 없는 경우는 68%이다. 코스타리카의 경우에 외국 유학경험이 있는 경우는 22%이고, 외국 유학경험이 없는 경우는 77%이다. 중미 전체에서 외국 유학경험이 있는 경우는 41%이고, 외국 유학경험이 없는 경우는 58%이다. 중미에서 외국 유학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국가는 온두라스이고, 가장 낮게 나타나는 국가는 코스타리카이다. 유학국가는 대부분이 미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온두라스 정치엘리트는 높은 해외경험과 교육수준으로 타계급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정치엘리트 간의 공통경험과 인식으로 응집성이 높다. 반면에 코스타리카는 경제적 요소가 작용하는 해외경험이 엘리트 진입장벽으로써 높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코스타리카 엘리트는 중미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경제적 계층에서 충원되고 있다.

요약하면 중미 엘리트의 성별 구성은 남성이 74%, 여성이 26%로 구성되어서 여성의 엘리트 참여가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가 27%, 50대가 26%로 나타 40대·50대가 주요 세대

이다. 교육정도를 보면, 대졸이 53%, 석사가 2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다. 외국유학 경험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 외국유학 경험이 없는 경우는 58%로 중미 엘리트는 상당 부분이 다른 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

<표 16> 중미 정치 엘리트의 외국유학 유무

구 분	외국 유학 경험		소 계
	있 음	없 음	
엘살바도르	39명(59.0%)	27명(40.9%)	66명
온두라스	20명(74.0%)	7명(25.9%)	27명
니카라과	31명(31.9%)	66명(68.0%)	97명
코스타리카	13명(22.8%)	44명(77.1%)	57명
총 계	103명(41.7%)	144명(58.2%)	247명

VI. 결론

과두제(oligarchy)는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권력으로써 적어도 중미에 있어서 과두제는 경제엘리트이며, 이들의 정치권력은 수출작물과 관련이 있다(Euraque 1996, 17). 과테말라 경우 경제 엘리트는 농업생산에서는 뛰어나지만, 농가공분야에서는 약하다. 따라서 이들의 권력 기반이 토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코스타리카 경우 경제 엘리트는 소규모 자영농에게 토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서 농업생산에서는 약하지만, 농가공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따라서 코스타리카 경제 엘리트는 소규모 자영농으로부터 커피를 구매하여 커피 가공분야에 전념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미에서 민주적 또는 권위주의적 정치·사회 문화는 커피에 기초한 농업생산과 농가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농업생산의 경우 커피생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육체노동자를 통제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권위주의적인 정치·사회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노동

억압적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 엘리트의 존재는 민주적인 정치·사회 문화에 장애로 나타난다. 반면에 농업생산 보다는 농가공분야가 지배적이었던 코스타리카에서는 일찍부터 민주적 정치·사회 문화가 존재했고, 코스타리카 엘리트는 사회갈등 출현시 소규모 자영농에게 점차적으로 참정권을 확대하였고 민주적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를 보다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1980년대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커피에 대한 기술적 발전으로 농가공분야의 경제 엘리트가 급격히 확대될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Paige 1997, 76-94).

중미 경제 엘리트의 특징을 보면, 중미 북쪽지역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경제 엘리트는 정치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주로 농업생산에 종사했다. 반면에, 중미 남쪽지역인 코스타리카에서 경제 엘리트는 정치에 참여율이 높고 경제분야에서는 주로 농가공 분야에 종사했다. 중미 정치 엘리트의 구성적 특징으로써 성별구성을 보면, 중미에서 여성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코스타리카이고 여성비중이 낮은 국가는 온두라스이다. 따라서 중미 엘리트 구성에서 남녀구성이 가장 균형적인 국가는 코스타리카로써, 성별에 따른 엘리트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연령구성을 보면, 중미에서 엘리트 세대간 나이구성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미에서 나이는 엘리트 진입장벽으로써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중미에서 대졸출신이 가장 많은 국가는 코스타리카이고, 고졸이하 출신이 가장 많은 국가도 코스타리카이다. 코스타리카는 중미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지만 교육에 의한 엘리트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외국유학 경험을 보면, 중미에서 외국유학 경험이 높은 국가는 온두라스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이고, 유학 국가 대부분이 미국이다. 코스타리카는 경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해외 경험이 엘리트 진입장벽으로 낮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타리카에서는 넓은 경제적 계층에서 엘리트가 충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과테말라는 분석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본 연구에서 성별, 나이, 교육수준, 해외유학 등은 코스타리카 엘리트

진입장벽으로 중미 4개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코스타리카 정치·사회 문화는 다른 중미국가 보다 민주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 중미 북쪽국가 엘리트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것은 토지의 비옥도가 높고 노동이 풍부해서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기반을 둔 노동억압적 농업생산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미 남쪽국가인 코스타리카 엘리트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것은 토지의 비옥도가 낮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보다는 자본집약적인 농가공분야에 중점을 두었고, 경제보다는 정치에 보다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적어도 코스타리카 엘리트 구성에서 성별·나이·교육수준·해외경험 등이 엘리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16-18세기 중미는 스페인 식민지로서 스페인의 정치적 원심력이 영향을 미쳤고, 19세기에는 영국과 독일의 경제적 투자지로 경제적 원심력이 보다 중미에 영향을 미쳤으며, 20세기부터는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원심력이 보다 중미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16-18세기의 스페인, 19세기의 영국·독일, 20세기의 미국의 영향력이 중첩된 혼종성을 이루며 현재에도 중미 엘리트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Abstract

En los años de 1970, Centroamérica se estaban en las situaciones difíciles por las catástrofes naturales y las súbitas alzas de los precios petroléos. Cada momento en que los pueblos centroamericanos habían demostrados repugnancias y disgustos contra los gobiernos, las administraciones centroamericanas respondieron en diferentes modos según las políticas culturales que cada Estado se tiene. En general, Guatemala y El Salvador respondieron en las maneras autoritarias y opresoras, y Costa Rica respondió en las maneras más flexibles. Con estas tendencias,

podemos observar que las elites de Guatemala son autoritarias y opresoras, y las de Costa Rica son más pacíficas y democráticas.

Este artículo se investiga estas diferencias políticas y sociales en las elites centroamericanas. Para ello, este artículo se indaga como siguiente: (1) los orígenes y las características de las elites de Centroamérica; (2) los cambios políticos y sociales en Centroamérica; (3) los cambios económicos en Centroamérica; (4) las características de las elites contemporáneas en Centroamérica.

Key Words: Central America, Guatemala, Costa Rica, Elite, Political Culture/중미,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리트, 정치문화.

논문투고일자: 2004. 10. 17

심사완료일자: 2004. 11. 13

게재확정일자: 2004. 11. 20

참고문헌

- 민만식(1992), 「과테말라의 역사」, 라틴아메리카연구 Vol.5 No.2, pp. 37-64.
- 몽고메리 T. S.(1987), 『엘살바도르 혁명사』, (이희건 역), 이성과 현실사.
- 해리스 L.(1987), 『니카라구아 혁명연구』, (편집부 역), 이성과 현실사
Anuario estadíst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03.
- Bottmore, T.(1964), *Elite and Society*, Middsex England: Pelican.
- CIA(2004), 미국, *The World Factbook*.
- Collado, Carmen(1988), *Nicaragua*, México: Universidad de Guadalajara.
- Dominguez, Juan I.(1996), *Constructing Democratic Governanc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1990*,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utrénit, Silvia(1989), *El Salvador*, México: Universidad de Guadalajara.
- Dye, Tomas R.(1976), *Who's Running America?*, Englewood Cliffe: Prentice Hall.
- Euraque, Darío A.(1996), *Reinterpreting the Banana Republic 1870-1972*,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Flora, Jan L.(1981), *Crisis del Poder en Centroamérica*, San José: Editorial Universitaria Centroameicana.
- Giraldo, Juan Leonel(1985), *Centro America entre Dos Fuegos*, Bogotá: Ediciones Gamma.
- Guillén, Diana(1989), *Costa Rica*, México: Universidad de Guadalajara.
- Holden, Robert H.(2004), *Armies without Nations: Public Violence and State Formation in Central America 1821-196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sswell, H.(1961), “Agenda for the Study of Political Elite”, in Dwaine M., *Political Decision Maker*, Glencoe: The Free Press. p. 66
- Moore, Barrington(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 Boston: Beacon Press.
- Mosca, Gaetano(1939), *The Ruling Class*, edited by Hannah D.,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Inc.
- Paige, Jeffery M.(1997), *Coffee and Power: Revolution and the Rise of Democracy in Central Americ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eto, Vilfredo(1935), *The Mind and Society IV*, New York: Harcourt Brace.
- Santana Cardoso, Ciro(1977), *Centro América y la Economía Occidental 1520-1930*, San José: Editorial de la Universidad de Costa Rica.
- Stone, Samuel Z.(1990), *The Heritage of the Conquistadores: Ruling Classes in Central America from the Conquest to the Sandinistas*, Lincon, Ne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_____ (2001), *Telltale Stories from Central America: Cultural Heritage, Political Systems, and Resistance in Developing Countries*,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Williams, Robert G.(1994), *States and Social Evolution: Coffee and the Rise of National Governments in Central America*,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Winson, Anthony(1989), *Coffee and Democracy in Modern Costa 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 Yashar, Deborah(1992), *Demanding Democracy: Reform and Reaction in Costa Rica and Guatemala*, Ph.D. diss., Berkery: University of California.
- <http://www.asamblea.gob.ni>
- <http://www.casapres.gob.sv/gabinete>
- <http://www.casapresidencial.hn/ministros>
- <http://www.observatorioelectoral.org>
- <http://www.presidencia.gob.ni>
- <http://www.racsa.co.cr/asamblea/diputado>